

사명 (사도행전 20:1-12)

우리는 광야를 살아간다고 말한다. 광야를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피하면 안되는 조건이 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유는 뭘냐면 앞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야를 이길 힘도 없기 때문이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라. 하루만 있어도 햇빛 때문에 죽는다. 구름기둥 없으면 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은 원죄와 사단의 문제로 운명에 빠졌다는 것이 성경말씀이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는 광야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광야의 답이라는 뜻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오늘이 답인 것이다. 오늘이 응답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언약이다. 이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살아도 영적인 죄를 짓는 경우를 빼고는 죽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이와 같은 응답이 온다는 것이 메시지이다. 굶어죽은 자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다. 40년동안, 그 햇빛 아래에서. 우상숭배해서 하나님 대적했을 때 죽었다. 가나안 땅 가야 하는데, 우린 거기 못한다고 했을 때 죽었다. 그것 말고는 죽은 적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다. 이것만 잡고 있어도 완전 답 난다. 언약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며 사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광야같은 인생에도 답이 있다는 그런 뜻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당연히 내가 평생을 여기에 걸어야 한다. 내 생명을 여기에 걸어야 한다. 일부터 죽으러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 인생의 초점이 여기를 떠나면 안된다. 이것은 잘 믿는 사람 뿐 아니라 구원 받은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 사실 이 기도가 24시간 되어야 하는데, 그건 잘 하는게 아니라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이것이다. 이 언약을 증거하여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는 것이다.

지난주에 호세이스 목사에게 카톡이 왔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난 곳 옆의 폴란드에 살고 있다. 그 피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에서 도와줘서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끊겼다고 한다. 그러니까 먹을것이 없는 것이다. 피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의 오빠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피난 안가고 목회를 하고 있다. 그 교회는 아직 포탄이 안 떨어졌지만 주위에는 포탄 떨어져 죽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안 떠나고 거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호세야스 목사님에게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전에는 이 복음을 싫어했는데 전쟁나고 난 후에는 오히려 이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전쟁 전에는 250명 교회가 지금은 2,500명이 되었다. 그래서 3월 말에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 떨어졌으니 좀 도와줘라고 연락이 왔다. 차도 얼마전에 어디 가다가 고장나서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 사는데 한 만불 정도 드는데 도와줄수 있냐고 부탁이 왔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정문식 선교사님이 사역하다가 전쟁 후에 지금은 남미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원래는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다. 그런데 그 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러시아를 떠나게 되어서 그 때 우크라이나로 갔다. 그 때 정문식 선교사에게 물어보니 우크라이나로 가게 된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는 제일 기독교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거기 전쟁일어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수 있으나, 우리도 625 때 오히려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이 희생으로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나라인 것이다. 처음에 후원이 끊어졌다고 했을 때 얼른 남미로 복귀하라고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미도 바쁘지만 유럽도 바쁘다. 좀더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건 하나님의 소원에 눈이 열리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소원에 마음이 담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입으로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세계복음화가 되어서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할 사업을 정말로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경제를 올린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앞에 다 드린다고 해도 떡에도 콩고물도 있듯, 경제가 커지면 콩고물만 가지고도 몇 대가 먹고 살수 있다. 기도가 커지기 바란다. 그냥 교회 하나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이다. 미국 교회에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남미에 계신 분들을 옥하는게 아니라, 이들 문화가 그렇다. 문화가 그래서 예를 들어 예배드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긴다. 미국도 그런 문화가 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할 일이다. 우리도 율법이 되어서 하면 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어떤때는 이게 더 낫다. 사명을 가져야 한다.

1. 사명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모르면 방향이다. 잘 살아도 방향이다. 육신적으로 잘 사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방향이 하나님과 다르면 방향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뻘하다. 내가 하는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는 전도자다.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다. 인생의 초점이 없으면 방향이다.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면 옆길이다.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이 내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중까지 메시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한 청년이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하루종일 메시지를 하니깐. 그러니까 그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평생 못올 수도 있다. 이것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일수도 있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 하고 떠났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런 사명자 되어야 한다. 사도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통해 로마까지 가고자 한 평생을 건 전도자였다. 그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고 복음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그 복음 전할 가슴이 있었다. 그가 말한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과 달랐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이해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했다. 이런 복음이 있으니 역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도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시대적인 복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너무 감사하고 시대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전하고 싶은 사명이다. 그래서 말씀 듣고 훈련 받아야 한다. 훈련 중에 말씀 한 마디가 나를 바꾸는 것이다. 생각 잘 안 바뀐다. 이걸 바꾸는 것이 훈련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중요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 힘이 있어야 한다. 말씀, 훈련 중에 듣는 말씀 한마디가 나를 바꾼다. 나 생각이 없어도 말씀 들어오면 그 생각으로 바로 바뀐다. 우리는 미국에 이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미국에 두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유는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이다. 우연도 없다. 미국 뿐 아니라 남미도 마찬가지이다. 왜 먼저 남미에 문을 여셨는가? 먼저 남미에 문을 열라는 것이다. 사명에 눈을 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도까지 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응답받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나는 전도는 안하고 기도는 안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응답만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속은 것이다. 왜냐하면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못 들어

가도 사단이 어떻게든 속여서 응답받고 끝내라고 한다. 그냥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을 통과해서 전도까지 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좋다고 하는 것이다. 나쁜거 아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복을 주신다. 돈 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돈에 눌러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 눌러 있다면 정상이 아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복하고 이것이면 된다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정상이다. 무엇이든지 어디 하나에 눌러 있다면 정상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신다. 죽음도 정복하고 끝내버렸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피흘려 못박혀 죽으면서까지 전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소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가 있다.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소원에 눈이 열리고 그것이 언약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누리게 되도 인생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정복하는 것이다. 전도에 놀리고 선교에 놀리는 것이 아니다. 정복하고 누리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란다. 당연히 경제, 자녀, 건강, 이기게 된다.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금식을 해서 이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자동으로 된다. 나는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으로 오는 것이 정상이다.

2. 제자

사도바울의 전도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복음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설명이 가다가 중간에 선 적이 없다. 끝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바늘 끝까지 정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다. 두 번째 특징은 기도중심이다. 먼저 현장을 나가는 법이 없고 기도하고 나갔다. 항상 기도가 먼저였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고 난 다음에도 복음운동을 지속할 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특징은 제자전도였다. 제자를 중심으로 이 복음운동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마태복음 13:8절 잘 아는데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30, 60, 100배 맺는 것이다. 이 좋은 땅이 제자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4:1절부터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것은 성령에 이끌려 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마귀가 스스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꺾으신 것이다. 왜 그랬냐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뱀 머리를 꺾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을 위해 시험 받으니 내 백성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 없는 것이다. 오직 그것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 대신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다. 이 시험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공생애 첫 번째 말씀이 마 4:1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첫 말씀이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셨다. 이것이 4:19이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였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이 제자부터 부르신 것이다. 사도바울도 이것을 깨치한 것이다. 답이 있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났다. 그 이후에 제자들과 살았는데, 바울은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전달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도 제자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같이 살고 늘 같이 다녔다. 이 때 많은 것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를 양육할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예베소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한 것이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갔

다. 그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고 하였다. 2절에. 그리고 헬라에 이르렀는데, 아덴이 있는 것이다. 거기서 3달이나 있었다. 거기서 뭐 했겠는가? 제자들 만났다. 제자들에게 말씀과 사명을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수리아로 건너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걸어서 갔다. 가면서 뭐했겠는가? 군데군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메시지했을 것이다. 4절에 그 때 연결된 대표적 제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 사람들하고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군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이 같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서 이레동안 머물렀다고 하였다. 뭐 했겠는가? 이게 사도바울의 전도이다. 우리도 이 눈이 있어야 한다. 전도와 관련하여 제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현장에서 이 눈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절대 안 바꾼다. 방법을 절대 안 바꾸신다. 눈 떠야 한다. 눈 안 열리면 이 글짜 아무리 봐도 안 들어온다. 어떻게 하면 눈 뜨는가? 기도하고 훈련 받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날 시간표에 눈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미국과 남미에 전달해야 한다. 복음과 함께 이 전도를 전달해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과해서 전도. 전도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 전도, 그 대표적인 단어가 제자 중심의 전도이다.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조직이 일어나는 시스템 전도.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고 사도바울은 이렇게 했다. 누구든지 해야하고 현장에 안 나가도 이 기도를 해야 한다. 사도바울에게는 짧은 시간에 이것이 들어온 것이다. 제자를 양육하는 내용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라는 눈도 열리지만 내용도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전도와 현장에 대한 방향과 방법도 제자들에게 제시해 줄수 있는 것이다.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과 전도와 제자에 눈이 열렸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기도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응답받고 좋아할 수준이 아니다. 시대적인 복음이라는 말은 정복한다는 것이다. 내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정복하는 것이다. 건강도 정복하고 돈, 자녀 다 정복하는 것이다. 전도도 선교도 정복해야 한다. 놀리는 것이 아니다. 울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해야 한다. 두려워 한다. 이것이 답이 나고 눈이 열릴 때 제자에게 이 말을 계속 할수 있다. 결국 바뀔 때까지 계속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미국과 남미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전할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준비하고 계시다. 이미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눈을 뜨고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신다. 그러면 당장 언약이 되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바로 응답된다. 이유는 그 주신 말씀이 이미 사인이기 때문이다. 이리로 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눠야 한다.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중에 계속 성취된다. 군데군데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일어나서 미국을 살리는 것이다. 큰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 복음이 바르면 됩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바른 성경적 전도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는다. 우리는 응답만 받고 끝내려는 경향이 있다. 그건 속은 것이다. 그리스도 누리면 부담이 없어진다. 내가 하는게 아니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 여실 것이다.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쉽다. 제자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내게도 제자 붙여달라고 진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탁구 치는것과 비슷한 것이다. 우리에게 공넘기면 나도 기도하는 것은 나도 공을 쳐서 넘기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차례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다. 기도만 하면. 전도는 단 한 건도 우리의 노력과 계획으로 되지 않는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계획해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에게로만 가게 된다. 전도도 그런데 하물며 제자는 어떻게겠는가? 사명은 일이 아니다. 응답이다. 능력이요 권세요 정복이다. 그게 사명이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와 함께 하는 조직을 가진 시스템 전도를 하기 바란다.